

아산 나눔 재단

아산나눔재단
연차보고서 2017

The Asan Nanum Foundation
Annual Report 2017

아산
나눔
재단

아산나눔재단
연차보고서 2017

The Asan Nanum Foundation
Annual Report 2017

목차

인사말	
· 명예이사장 인사말	06
· 이사장 인사말	08

아산나눔재단 소개	
· Overview	10
· 비전&미션	11
· 2017 Highlight	12

1 프로그램

Program

기업가정신 교육 사업	
· 히어로스쿨	17
· 아산 기업가정신 리뷰	20
· 아산서원	22
· 아산 프론티어 유스	24

청년 창업 지원 사업	
· 정주영 창업경진대회	27
· MARU180	29
· 정주영 엔젤투자기금	32
· 스타트업코리아! 정책 제안 발표회	33
· 창업생태계 파트너십	34

비영리 역량강화 사업	
·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36
· 아산 프론티어 네트워크	38
· 파트너십 온	40

2 투명경영

Transparent Management

재정 보고

- 사업비 지출현황 44
-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45
- 재무상태표 46
- 운영성과표

아산나눔재단 사람들

- 임원진 47
- 사무국 48
- 출연자 및 출연 기관 49

1930년대 아산의 모습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해내는 법이다

아산
정주영

명예이사장 인사말



정몽준

아산나눔재단 명예이사장

아산나눔재단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도전하는 젊은이들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아산나눔재단은 아버님 서거 10주기였던 2011년 출범하였습니다.
젊은이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열정을 불어 넣어줄 수 있는 일을
해보자는 생각에서였습니다. ‘현대’라는 큰 기업도 처음 시작할 때는 작은
벤처기업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도 젊은 시절 건설현장 노동자, 인천 부두
노동자, 쌀가게 직원으로 일하셨습니다. 아버님은 성공의 비결은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태도와 어려워도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공에는 개인의 노력과 운도 필요하겠지만, 주변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1940년, 아버님께서 사채업자로부터 3천 원을 빌려 자동차 수리공장을
시작하셨는데 시작 하신지 얼마 안되어서 공장에 불이 났습니다. 아버님은 다시
사채업자를 찾아가셔서 “뜻하지 않은 화재를 만나 몽땅 다 날리고 빚더미에
올라앉았는데 이대로 꺾이고 나면 먼저 빌려간 영감님 돈 3천 원도 갚을
길이 없습니다. 한 번만 더 도와주셔서 영감님 빚을 갚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청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사채업자는 “나는 이날까지 단 한번도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준 적이 없어. 신용만을 보고 빌려주지. 그런데 신용만 보고 빌려준
돈을 떼인 기록도 없는 사람이야. 그게 내 자랑이지. 그래 좋아. 내 평생에
사람 잘못 봐서 돈 떼였다는 오점만을 찍기는 나도 싫네.” 라며 3천 5백원을
또 빌려주었습니다. 아버님이 이 돈으로 다시 일어나 성공하셨으니 이야말로
엔젤투자의 효시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조선소 설립 자금을 구할 때도 아버님은 영국 바클레이스 Barclays 은행을
찾아가셨습니다. 당시 바클레이스 은행 부총재는 아버님께 “정회장의 전공은
경영학입니까, 공학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지금은 북한에 있는 강원도
통천군의 송전소학교를 3년간 다니신 것이 학력의 전부이셨던 아버님은 순간

아찔하셨지만 이내 태연하게 되물으셨습니다. “우리가 당신네 은행에 낸 사업 계획서를 보았습니까?” 바클레이스 부총재가 보았다고 하자 아버님은 “어제 내가 그 사업 계획서를 들고 옥스포드 대학에 갔더니 한 번 쳐 들춰보고 바로 그 자리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주더군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부총재가 껄껄 웃으면서 “옥스포드 대학 경영학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도 그런 사업 계획서는 못 만들 거요. 당신은 그들보다 훨씬 더 훌륭합니다. 당신의 전공은 유머 같소. 우리 은행은 당신의 유머와 함께 당신의 사업 계획서를 수출보증국으로 보내겠소. 행운을 빌겠소.”라면서 2천만불에 달하는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기업가도 혼자 힘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주위의 도움 그리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생태계가 잘 조성되어야 합니다. 아버님께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해내는 법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산나눔재단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도전하는 젊은이들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한 해가 갈수록 우리가 하는 일이
다음 세대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매일 고민합니다.

이사장 인사말

아산나눔재단이 2017년 한 해 동안 수행한 사업을 여러분께
보여 드릴 수 있음에 기쁘게 생각합니다.

2017년은 아산나눔재단이 전환점을 맞이한 해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11월, 아산나눔재단은 신당동에 새 둥지를 틀고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를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청년 창업가와 사회혁신가가 도전하고, 성장하고, 나누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를 위해 청소년과 청년의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해 다양한 교육 사업을 실행했습니다. 전국 9개 지역
188개 중·고등학교에서 청소년 대상 기업가정신 교육을 하고, 대학생
대상 인문학 기초 교육 프로그램과 비영리 인재양성 프로그램 등을
진행했습니다.

동시에 청년 창업가를 지원하기 위해 역삼동 창업지원센터 MARU180을
운영하고, 정주영 창업경진대회를 이어오는 동시에 창업생태계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발표회도 개최했습니다. 사회혁신가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작년까지 179명의
비영리 전문가를 배출했으며, 파트너십 온을 통해 7개 비영리기관이
다양한 성과를 올리고 졸업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이, 우리의 신념이,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맞나 되돌아보기도 합니다. 한 해가 갈수록 우리가 하는
일이 다음 세대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매일 고민합니다.
고민의 끝은 늘 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더욱 성심성의껏
해내자는 다짐입니다.



이경숙

아산나눔재단 이사장

우리가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참 많습니다. 가장 먼저, 아산나눔재단을 설립해 일할 기반을 열어 주신 정몽준 명예이사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뜻을 모아주신 출연자, 출연기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외에도 재단 사업에 항상 도움을 주시는 전문위원, 자문위원을 비롯해 이사, 임원진 여러분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데 늘 최선을 다해 임하는 우리 재단 직원들도 격려해주고 싶습니다. 사업을 만들어도 함께 하는 참여자가 없다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재단과 함께하는 청년 창업가, 사회혁신가들에게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칭찬은 아산나눔재단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Overview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를 수 있는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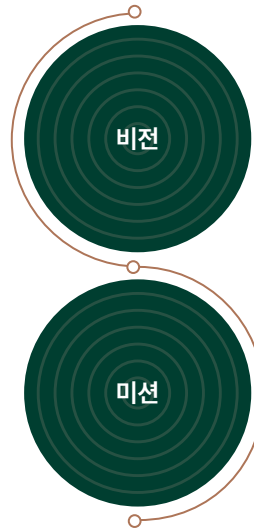
아산나눔재단은 고故 아산 정주영 현대 창업자의 서거 10주기를 기념해 2011년 10월 출범한 공익재단입니다. 아산나눔재단은 우리 사회에 아산의 창조 정신을 계승한 ‘기업가정신(起業者精神; Entrepreneurship) 확산을 위해 사회 전반에서 다양한 방식의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산나눔재단은 더 나은 세상으로의 변화를 이끄는 사람과 기관을 양성해 사회발전을 이루고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를 수 있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청년 창업가와 사회혁신가가 도전하고, 성장하고, 나누는 기반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기업가정신 교육 사업, 청년 창업 지원 사업, 비영리 역량강화 사업 등을 다양하게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비전&미션

아산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슨 일이든 이룰 수 있다” 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아산나눔재단은 더 나은 세상으로의 변화를 이끄는 사람과 기관을 양성해 사회발전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들은 다음세대가 지닌 무한한 가능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보듬어 줄 것입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룰 수 있는 세상

세상을 변화시키는 창업가와
사회혁신가(Social Innovator)가 도전하고
성장하고 나누는 기반을 만듭니다.



도전

더 나은 세상으로의
변화를 이끄는 힘

성장

배움과 실천을 통한
잠재력의 발휘

나눔

더불어 사는 책임주체로서의
성숙한 의식

역량개발

일회성, 시혜성 사업이 아닌
지속적인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사업

사회적 파급효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회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

자생력 복원

개인과 사회의 자생력을 복원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업

책임성

새로운 시도에 과감하지만
책임 있는 투자

질적 성과

양적 사업성과를 넘어 질적
사업성과를 추구

투명성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한
사업진행

Jan.

01/13

"아산서원" 9기 졸업식

Feb.

02/15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6기 수강생 모집

02/16

"아산 프론티어 유스"
2기 수료식

Mar.

03/02

"MARU180" 상반기 입주
스타트업 모집

03/07

"제6회 정주영
창업경진대회" 개최

Apr.

04/14

"MARU180" 개관 3주년

04/21

아산나눔재단-에어비엔비
업무 협약체결

04/24

"파트너십 온 협약식" 개최

04/26

"아산 기업가정신 리뷰"
8기 집필진 모집

04/27

"아산 프론티어 유스"
3기 단원 모집

May

05/11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6기 입학식

05/23

마루마켓 개최

2017 Highlight

아산나눔재단은 2017년 한 해,
청년 창업가와 사회혁신가가 도전하고, 성장하고, 나누는 생태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Jun.

Jul.

Aug.

Sep.

Nov.

Dec.

06/23

"아산서원" 10기 졸업식

06/30

"아산 기업가정신 리뷰"
사례 발행 <진글라이더>

06/30

"아산 기업가정신 리뷰"
사례 발행
<로우로우(RAWROW)>

07/07

"2017 N_FORUM" 개최

07/13

"스타트업코리아
정책 제안 발표회" 개최

07/27

"아산 프론티어 유스"
3기 입단식

08/23

"제6회 정주영
창업경진대회"
결선 대회 개최

09/05

"MARU180" 하반기
입주 스타트업 모집

11/01

아산나눔재단
신사옥 개관식

11/01

"파트너십 온" 데모데이

11/20

"아산 기업가정신 리뷰"
사례 발행 <한국콜마>

11/25

"2017 히어로스쿨
페스티벌" 개최

12/02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6기 수료식

아산나눔재단은 새로운 도전과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더 큰 나눔을 만드는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Program

아산나눔재단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룰 수 있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기업가정신 교육 사업, 청년 창업 지원 사업,
비영리 역량강화 사업 등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기업가정신 교육 사업

- 히어로스쿨
- 아산 기업가정신 리뷰
- 아산서원
- 아산 프론티어 유스

청년 창업 지원 사업

- 정주영 창업경진대회
- MARU180
- 정주영 엔젤투자기금
- 스타트업코리아! 정책 제안 발표회
- 창업생태계 파트너십

비영리 역량강화 사업

- 파트너십 온
-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 아산 프론티어 네트워크

1



기업가정신 교육 사업

“청소년과 청년들이 일상 속의 문제를 찾고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히어로스쿨 Hero School

아산나눔재단은 2016년부터 기업가정신 교육기관인 '어썸스쿨(Awesome School)'과 함께 '히어로스쿨'을 진행합니다. 히어로스쿨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사고하고 도전해 가치를 만들고, 이를 통해 변화를 만들어내는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참여 학생들은 행동 중심의 프로그램에 따라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하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동체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고, 가치를 창출합니다. 교육은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되며, 2017년 한 해 전국 9개 지역 188개 중·고등학교에서 히어로스쿨을 진행했습니다.

2017 히어로스쿨 운영 결과

참여 학교 수

188개



참여 학급 수

445개



참여 학생 수

13,000명



청년강사 수

87명



Interview

히어로스쿨 참여 학생

아산나눔재단이 어썸스쿨과 함께하는 히어로스쿨에는 2017년에만 약 1만 3천 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히어로스쿨을 통해 많이 성장한 자신을 발견했다는 세 명의 친구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용인 삼계고 3학년 이은혜 학생, 용인 백현고 2학년 한지민 학생, 부천 수주고 2학년 이유림 학생입니다.

이 세 명의 학생은 히어로스쿨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을까요?

이은혜

2016년부터 2년 연속으로 히어로스쿨에 참여했어요. 1학년 때 친구의 권유로 시작했다 17년에는 멘토로 참여하게 되었죠. 학생이 직접 프로그램을 이끌어간다는 점이 흥미로웠어요.

한지민

학교에 입학했을 때, 히어로스쿨을 홍보하는 안내장 그림이 인상적이었고, 기업가정신을 함양할 수 있다고 해 호기심을 느꼈어요.

이유림

저는 우연히 히어로스쿨에서 하는 기업가정신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 처음 접하는 내용에 호기심이 생겨 친구와 함께 시작하게 되었어요.



히어로스쿨은 팀별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각자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느낀 점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은혜

교내에 '소통벽'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했어요. 학생들이 소통벽에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그곳을 통해 소통하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죠. 아쉽고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나도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자존감과 책임감, 리더십이 향상되는 느낌이었어요.

한지민

저희는 조원 모두가 여자였는데요. 공통으로 성폭력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폭력 상담소에 기부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했죠. 엽서를 만들어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냈습니다. 협동심과 리더십을 기를 수 있었어요!

이유림

저희는 위안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싶어 한일협정의 문제점을 알리기로 했어요. 'Please Protect the Comfort Women'이라는 문구를 새긴 팔찌를 300개 제작해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입구에서 배포하는 동시에 피켓에 한일협정 문제를 적어 알렸죠. 시작은 어려웠어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고, 팀원 간 사이도 돈독해졌어요.



학생들은 히어로스쿨과 같은 교육방식이 꼭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은혜

히어로스쿨을 하기 전에는 저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없었어요. 히어로스쿨에서 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됐고, 결국 제 인생을 바꿀 기회를 가졌다고 생각해요.

이유림

히어로스쿨은 청소년에게 꿈을 탐색하게 하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요. 더 나아가 도전정신도 기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히어로스쿨이란?'

이은혜

히어로스쿨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히어로스쿨을 접하기 전, 저는 하고 싶은 것도, 대학에 진학해야겠다는 생각도 없었어요. 목표도 없이 공부에 치여서 살았죠. 히어로스쿨을 통해 제 꿈을 찾았고, 삶도 180도 달라졌어요.

한지민

히어로스쿨은 제게 새로운 시작입니다. 가지고 있던 선입견이나 편견을 최대한 버리려고 노력하게 되었고,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도 이전과는 달라졌어요. 특히, 어떤 문제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하고 그에 따른 해결방법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림

히어로스쿨은 숨은 보석을 찾아준 광부라고 생각해요. 몰랐던 저의 숨겨진 재능과 능력을 발견하게 되었거든요. 또, 진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볼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산 기업가정신 리뷰 Asan Entrepreneurship Review

아산 기업가정신 리뷰는 아산나눔재단이 대학 및 대학원생의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해 만든 교육용 사례집 Case Study입니다. 전략, 마케팅, 인사 등 경영학 이론을 활용해 우리나라 스타트업과 벤처·중소·중견기업의 생생한 사례를 담아 대학(원)생들이 실용적, 비판적 사고력을 함양하는 동시에 토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집필에는 국내 우수 경영대학 교수와 전문가뿐만 아니라 창업가, 기업 임직원 등이 참여합니다. 특히, 심도 있는 분석과 토론이 가능하도록 관계자 인터뷰, 시장 자료, 기업 실적 데이터 등 다양한 내용을 담으며, 교수자가 수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티칭노트를 제공합니다. 2017년 12월까지 총 23개의 사례가 발행되었으며, 사례 전편은 아산 기업가정신 리뷰 홈페이지 www.asan-aer.org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2017 아산 기업가정신 리뷰 운영 결과

사례 다운로드 수

2,382^회



티칭노트 다운로드 수

350^회



사례기업명	사례명
락앤락	환경과 사람을 생각하는 기업가정신
팅크웨어	길을 넘어 길을 찾아
유엔파트너즈	유엔파트너즈의 성공과 도전
마이다스아이티	마이다스아이티의 인사관리 시스템
카카오	모바일 소셜 플랫폼의 진화
캡스톤파트너스	창업투자회사의 2차 투자 딜레마
컴퍼니원헌드레드	기업의 혁신을 이끄는 사용자 의견
이지팜	교내창업에서 일구어 낸 Radical Innovation
솔리드	사람으로 시작하여 자본시장까지(이태희)
솔리드	사람과 기술이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상명)
데브시스템즈	쿠키런! 쿠키들의 용감한 질주
딜라이트	'열정'과 '냉정' 사이에서
NHN 엔터테인먼트	모바일 게임 플랫폼 변화의 기회와 위협
옐로모바일	모바일 벤처 연합군

사례기업명	사례명
시몬느	"Why not us?" 명품 핸드백 시장의 히든 챔피언
엔씨소프트	온라인 게임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한 도전 - 엔씨소프트의 초기 글로벌화
SK엔카	창조경제를 위한 기업 생태계 - 사내벤처(ICV)에 성공한 SK encar
네이버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가정신의 장(場), 네이버
베어베터	"MISSION IMPOSSIBLE?" '이익 ZERO' 고용 경영
데이블	Winning Business Model
로우로우	"본질만 남기고 다 빼라!" - 로우로우(RAWROW)의 브랜드 마케팅 사례
진글라이더	개성공단 폐쇄 후 공급사슬 재구축 및 새로운 생산기지 선정 전략
한국콜마	얼굴 없는 화장품 회사에서 뷰티·헬스 그룹으로
직방	집을 구하는 공식을 바꾸다
한국콜마	K-Beauty 메이드 인 차이나

※ 발간순서 기준



아산서원

아산서원은 아산나눔재단이 민간 싱크탱크인 아산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매년 선발되는 60명 이내의 원생은 기숙사(아산학사)에서 생활하며 1년간 최고의 교수진으로부터 역사, 철학, 정치, 경제, 문화 분야를 아우르는 인문교육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워싱턴, 중국 베이징의 국제적 싱크탱크에서 인턴십 경험도 할 수 있습니다. 2012년 설립 이후 아산서원을 통해 총 304명의 졸업생이 배출되었으며, 아산서원 출신 원생들은 사회 전반에 걸쳐 글로벌 리더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아산서원 운영 현황

졸업생

304명



인턴십 기관

25개



아산서원 원생 후기



워싱턴 D.C의 Hudson Institute에서 근무하며 서른 개 정도의 프로젝트를 경험했습니다. 학교라는 울타리 밖에서 처음 접한 사회는 제 시야를 넓혀주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하는 곳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이 안에서 '나'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9기 원생

강예녹 | KAIST



중국의 환경보호단체인 아라산SEE공익기구의 브랜드커뮤니케이션 부서에서 일하며 '2017 SEE 생태상'을 준비하는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시상식을 준비하며 중국 내 많은 개인과 단체가 환경보호에 힘쓴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 개인적으로도 환경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게 된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10기 원생

윤지민 | Peking University



워싱턴 D.C의 비당파적 싱크탱크 CATO의 헬스케어 파트에서 근무했습니다. 이곳에서 한국의 의료제도를 주제로 연구를 수행하며 식견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특히, 30여 명의 인턴 동료들과 인턴 세미나실에서 하루에 한 번 토론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시각과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진지한 고민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9기 원생

박인혜 | 상지대학교



Atlantic Council에서 근무하며 인턴에게 부여되는 다양한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연구, 출판, 콘퍼런스를 통해 폭넓은 지식과 함께 책임감도 기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개인의 역량과 역할을 모두 존중해 주신다는 느낌을 받았고, 덕분에 인턴십을 했던 19주는 끊임없이 성장한다는 생각이 들만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10기 원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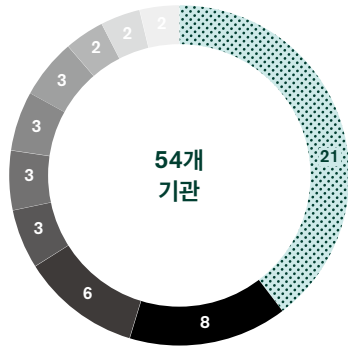
박공손 | 한국외국어대학교

아산 프론티어 유스 Asan Frontier Youth

아산 프론티어 유스는 아산나눔재단이 기업가정신을 갖춘 차세대 비영리 인재 육성을 위해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NGO 인턴십, 임팩트 교육, 글로벌 스터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5개월 동안 복지, 사회적 기업,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비영리 기관에서 인턴십을 진행하는 동시에 주변의 사회문제를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탐구하며 문제 해결 능력을 기릅니다. 이외에도 국내외 비영리 분야 전문가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진로를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아산 프론티어 유스를 거쳐 간 수료생은 83명, 인턴십 참여기관은 총 54개에 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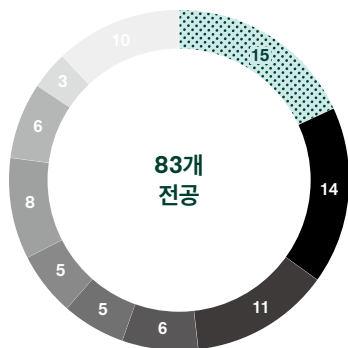
아산 프론티어 유스 인턴십 참여기관



- ※ 복지
- 교육/연구
- 의료/보건
- 시민권리/인권
- 국제구호/협력
- 기부/모금
- 문화/예술
- 환경/생태
- 사회적경제
- 자원봉사

아산 프론티어 유스 단원 전공 분포

* 디자인, 컴퓨터공학, 생명과학, 종교학 등



- ※ 사회복지
- 경영, 경제
- 국제
- 정치
- 교육
- 언론홍보
- 언어, 문학
- 행정
- 사회
- 기타*

아산 프론티어 유스 3기 단원 후기



아산 프론티어 유스는 제가 비영리를 ‘알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막연히 꿈만 꾸던 비영리가 무엇인지, 어떤 사람들이 일하는지를 듣고,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스를 통해 만난 동기들과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들에 대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같은 온도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가슴 뛰는 순간들이었습니다.

강우정 | 서울시립대학교



아산 프론티어 유스를 통해 저와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24명의 동기들과 다양한 활동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팀 프로젝트를 하며 ‘대학생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의구심은 글로벌스터디를 통해 해소되기도 했습니다. 저의 역할에 대해, 우리의 역할에 대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권병수 | 영남대학교



아산 프론티어 유스의 모든 교육 과정은 소시민적 태도로 삶을 대해오던 제가 사회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을 시도해 볼 수 있도록 사회적 감수성과 상상력을 높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유스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암묵적으로 강요하는 기준에서 벗어난 것이 결코 ‘틀린’ 삶이 아니라 저마다 ‘다른’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김예령 | 서울여자대학교



아산 프론티어 유스를 통해 저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여기에 답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배운 것을 좋은 곳에 활용하고 싶다는 꿈을 실현할 수 있었던 기회도 부여받았습니다. 비영리 기관 인턴십을 통해 제가 가진 가치를 통해 사회에 임팩트를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하루하루가 새롭고, 즐거웠습니다.

박범관 | 한국교통대학교



청년 창업 지원 사업

“전국의 예비 창업가를 발굴하고,
창업가를 위한 교육, 멘토링, 공간 등을 지원합니다”

정주영 창업경진대회
27

MARU180
29

정주영 엔젤투자기금
32

스타트업코리아!
33

창업생태계 파트너십
34

정주영 창업경진대회

정주영 창업경진대회는 전국에 기업가정신과 창업문화를 확산하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스타트업을 발굴 및 지원하기 위한 실전형 창업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아산나눔재단은 2012년에 시작해 2017년까지 총 6회 대회를 치렀습니다. 대회는 매년 3월부터 8월까지 총 6개월간 진행되며, 스타트업 창업가 강연, 전문가 멘토링, 사업실행, 결선대회 등으로 구성됩니다.

사업실행 단계에 진출한 팀은 아산나눔재단이 운영하는 창업지원센터 'MARU180'에 입주해 9주간 실제 사업을 진행하며, 유수의 액셀러레이터 파트너 및 벤처캐피털 투자자 등 창업 분야 전문가로부터 전담 멘토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산나눔재단은 대회 개최 이후 현재까지 총 53개 팀을 발굴했습니다. 대회를 거쳐 간 팀들은 '정주영 창업경진대회 알럼나이Alumni'에 소속돼 아산나눔재단에서 제공하는 여러 혜택을 받으며, 창업생태계의 일원으로 함께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제6회 정주영 창업경진대회 운영 결과

지원 스타트업 수

366^팀



지역 설명회 참가자

1,622^명



6회 평균 경쟁률

46:1



정주영 창업경진대회 Alumni 현황

Alumni 사업 지속률

78%



Alumni 수상 후 투자 유치 성공률

30.2%



Interview



윤지현

소보로(소리를 보는 통로) 대표
제6회 정주영 창업경진대회 우수상

윤 대표는 어떻게 '정창경'에 참여하게 되었을까요?

처음 소보로 창업을 결심하고 동기 두 명과 함께 서울로 올라왔어요. 당시 정주영 창업경진대회 포스터를 보게 됐죠. '불가능은 없다'라고 쓰여진 문구가 인상적이었어요. 또, 당시 소셜벤처 업계에선 굉장히 유명한 SOPOONG의 한상엽 대표님이 멘토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윤 대표는 정창경을 통해 받았던 여러 가지 혜택 중, 단연 최고는 사업실행 단계에서 진행된 전문가 멘토링이었다고 말합니다.

사실 정창경 최고의 수확이 한상엽 대표님을 만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예요. 저희는 IT학과 재학생이었다 보니 개발은 하는데, 경영 지식은 전무했죠. 사업계획이나 전략에 대한 감도 부족했었고. 그때 저희를 도와주신 분이 바로 한상엽 멘토님이었어요. 정신적으로도 가장 큰 의지가 되었습니다.

'소리를 보는 통로'이하 소보로'는 제6회 정주영 창업경진대회이하 정창경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팀입니다. 포항공과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윤지현 대표가 학과 수업을 듣던 중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용이하게 하고,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사업에 뛰어들었지요.

윤 대표는 포항공대 재학 중, 소보로의 필요성을 처음 느꼈습니다. 청각장애인 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때, 굉장히 불편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이들에게 보조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학기 내내 개발에 착수해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습니다. 강의가 진행될 때 저절로 자막이 생성되는 형태의 이 소프트웨어는 청각장애인들이 강의나 강연 등을 들을 때 거의 동시에 자막도 함께 볼 수 있어 굉장히 편리합니다.

소보로는 청각장애인들이 온라인 상으로 인터넷 강의나 뉴스를 듣고 싶을 때, 그리고 오프라인 특강이나 강연, 학교 수업이나 교회 설교 등에 참석했을 때 조금 더 편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ARS 인증이나 전화통화까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네요.

그야말로 '불가능은 없다'에 도전한 소보로 윤지현 대표는 초기 창업, 예비 창업팀에게 정창경에 도전하는 것을 '강추'했습니다. "정주영 창업경진대회에 지원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소보로가 있었을까 싶어요. 비슷한 단계의 팀들이 모두 모여 고충을 털어놓고 고민하면서 발전할 수 있었고, 정창경이 제공하는 혜택으로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MARU180

MARU180은 아산나눔재단이 창업에 필요한 인프라, 네트워크, 교육 등 종합적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창업지원센터입니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180에 있는 이곳은 2014년 4월에 문을 열었으며, 총 6개 층, 1,090평 규모로 스타트업 사무공간, 코워킹 카페, 이벤트홀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MARU180은 입주 선발 심사를 통과한 스타트업에 사무공간을 지원하며, 회의실, 휴게실, 수면실 등 다양한 부대 시설도 함께 제공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크레딧, 홍보 마케팅, 투자 연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MARU180에는 스타트업 외에도 벤처캐피탈, 액셀러레이터 등이 함께 입주해 있으며, 네트워크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입주기업 직원들의 생활 편의와 상호 교류를 위해 다양한 문화행사 등을 개최하며, 멘토링랩을 운영해 외부 창업가에게도 분야별 전문가와의 1:1 멘토링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하 이벤트홀에서는 스타트업에 필요한 교육, 해커톤, 데모데이, 네트워킹 모임 등이 상시 진행됩니다. 2017년에만 스타트업 관련 행사가 400회 이상 열렸으며, 현재까지 MARU180을 거쳐 간 기업도 총 134개에 이릅니다.



2017 MARU180 운영 결과

MARU180 연 평균 유동인구

약 **12**만명



스타트업 관련 행사 개최 수

421회



입주 모집 경쟁률

26:1



2017년 졸업사 입주 기간 내
투자유치 규모

79억 원



멘토링랩 개최 횟수

66회



MARU180 투어 진행 횟수

100회



Interview



박소령

PUBLY 대표

퍼블리PUBLY는 2016년 11월 MARU180이하 마루180에 입주해 1년의 시간을 보내고 졸업한 마루180의 졸업사입니다. 퍼블리는 이제껏 한국에 없던 유형의 스타트업으로 지적 콘텐츠를 생산, 유통, 소비하도록 하는 ‘유료 콘텐츠 플랫폼’입니다.

퍼블리의 박소령 대표는 학교보다 독서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합니다. 본인이 그러했듯 누군가에게 콘텐츠를 통해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퍼블리를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퍼블리는 어떻게 마루180에 지원하게 되었을까요?
박 대표는 퍼블리가 마루180에 입주한 것을 두고 단순 사무공간을 옮긴 것 이상의 상징성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마루180으로 사무실을 옮긴다는 것은 본격적인 경쟁에 뛰어든다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강남에 근거지를 둔다는 것은 수많은 스타트업 사이에서 치열하게 일할 것을 각오했다는 의미였으니까요.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루180 지원에 대해 망설이고 있을 때, 마루180 입주사는 업계에서 인정받은 것이라는 인식이 생길 만큼 좋다는 조언도 많이 받았어요(웃음).

그렇게 마루180에 입주한 퍼블리는 지적 콘텐츠를 만드는 스타트업답게 다른 스타트업들에게도 지적 자극을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많은 입주사 대표들이 퍼블리 팀이 일하는 모습을 보며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렇다면 퍼블리는 마루180의 어떤 점이 좋았을까요?

마루180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문화행사가 참 많았어요. 이외에도 이벤트홀에서 스타트업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가 많아 우리 팀원들이 자주 참석했습니다. 대표로서 업무 외에 다른 활동에 신경을 많이 못 써줬는데, 마루180을 통해 이 부분이 충족되니 참 감사했죠.



퍼블리의 마루180 입주 전후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퍼블리의 비즈니스 터닝포인트가 된 시기죠. 입주 초기만 해도 퍼블리의 수익 구조는 단순했습니다. 프로젝트마다 진행되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나오는 수익이 퍼블리 매출의 전부였거든요. 지금은 퍼블리 멤버십 구독에서 나오는 매출이 더 많습니다. 매출 포트폴리오 구성이 그만큼 많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마루180에서 멤버십 구독 서비스를 만들어낸 것이 가장 큰 변화 아닐까요?

매출 구조의 변화가 생길 정도로 퍼블리는 치열하게 일한 졸업사 중 하나입니다. 박 대표 자신도 마루 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새벽 퇴근길에 마주하던 마루180 정문 네온사인'이라고 답했을 정도니까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퍼블리의 올해 목표는 무엇일까요?

퍼블리를 아는 사람은 알아도, 모르는 사람은 아예 모를 수 있어요. 올해는 퍼블리라는 브랜드를 '얼리 매저리티(Early Majority)'에게 인식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소비자들이 저희 콘텐츠를 통해 '스터디(Study)'가 아닌 '러닝(Learning)'하기를 원하죠. 장기적으로는 퍼블리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습니다.



마루180에서 생활한 약 1년이 초기 스타트업이 버티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는 퍼블리의 박소령 대표. 마루180에서의 추억을 잊지 않고 퍼블리가 앞으로 한국의 지적 콘텐츠 스타트업을 대표하는 멋진 유니콘이 되기를 아산나눔재단도 함께 바라봅니다.

정주영 엔젤투자기금

정주영 엔젤투자기금은 아산나눔재단이 국내 창업·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2012년 2월에 1,000억 원 규모로 조성한 기금입니다. 아산나눔재단은 엔젤투자자, 액셀러레이터, 벤처캐피털과 협력해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를 진행합니다. 또한, 정주영 창업경진대회 수상팀에게는 직접투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산나눔재단은 정주영 엔젤투자기금 조성 이후 현재까지 545개 기업에 총 4,978억 원을 조달하는 등 국내 스타트업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주영 엔젤투자기금 현황

지원 스타트업

545개



투자금액

4,978억 원



※ 2017년 12월, 출자 조합을 통한 간접투자
기업 및 총액 기준



스타트업코리아! 정책 제안 발표회

스타트업코리아 정책 제안 발표회 진행 결과

보고서 다운로드 수

2,185^회



언론보도 현황

85^건 기사 게재



아산나눔재단은 2017년 7월, 구글 캠퍼스 서울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한 스타트업코리아!' 보고서를 발표하는 정책 제안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발표회는 향후 스타트업 정책을 설계하는 데 도움을 주고, 건전한 스타트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열렸으며,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스타트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 방향에 대한 연구보고서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민간기관, 스타트업, 정부, 국회, 학계 등 창업생태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모여 한국 스타트업의 질적 성장과 생태계 활성화 등에 관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보고서는 실제 정부의 스타트업 관련 정책 설계 등에 활용되었으며, 현재까지 다수 언론매체에 인용되며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 도모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창업생태계 파트너십

아산나눔재단은 창업생태계 구성원들이 더욱 나은 환경에서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다양한 정보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여러 유관기관과 파트너십을 맺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망 스타트업이 더 많은 이들에게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도록 ‘스파크랩’, ‘퓨처플레이’, ‘프라이머’ 등 국내 대표 스타트업 데모데이에 후원을 진행했으며, 지난해에는 울산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최하는 ‘창업인턴학기제’, 국내 최대 개발자 콘퍼런스 ‘파이콘’ 등을 지원했습니다. 이외에도 더 많은 이들이 창업생태계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졸지말고 투자하라’, ‘Startup Grind Seoul’ 등에도 매년 검토를 통해 후원을 진행합니다.

창업생태계 파트너십 현황

후원기관 수

49개



총 후원금액

13.76억 원



※ 2017년 12월 기준





비영리 역량강화 사업

“비영리 분야에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
사회혁신가를 육성합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Asan Frontier Academy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현직 비영리 중간관리자가 경영 능력과 리더십, 기업가정신을 고루 함양한 차세대 비영리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전문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수강생들은 경영(전략, 인적자원, 마케팅, 재무회계)과 리더십, 사회혁신, 캡스톤 프로젝트로 구성된 통합 교육을 통해 기관 발전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전문성을 기를 수 있습니다.

7개월간 진행되는 교육은 단순 강의식 교육을 벗어나 사례학습과 토론, 워크샵, 해외방문연구조사를 포함하여 다면적으로 운영됩니다. 2013년 제1기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 135개 비영리 기관의 179명 수료생을 배출했습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현황

수료생 수

179명



참여 기관 수

135개



※ 2017년 12월 기준





제6기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수강생 후기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현직
비영리 중간관리자가
경영 능력과 리더십,
기업가정신을 고루
함양한 차세대 비영리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전문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10년간 비영리 기관에서 치열하게, 그리고 익숙하게 지내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합격통보를 받고 첫 모임에 나가던 순간! 그동안 잊고 지내온 설레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익숙지 않은 교육에 처음엔 낯설기도 했지만, 지금의 제 위치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상엽 |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사회 초년생 때는 비영리에서 어떤 업무를 하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흘러 이 분야의 일을 그저 업무로 인식하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통해 다시금 소중한 제 일에 가치를 부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원태 | 함께일하는재단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신세계를 맛보게 해준 시간이었습니다. 전략, 리더십, 마케팅, 인적자원, 재무회계, 캡스톤 등의 다양한 모듈별 수업은 조직에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그야말로 프론티어 정신에 입각한 모든 상황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해결능력을 또 한 번 부여해준 좋은 기회였습니다.

박미경 |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태업에 빠지려는 나를 계속 깨우는 시간, 습관에서 벗어나 새롭게 바라보고 해석하는 시간, 선택을 연습하는 시간, 직관적으로 해오던 일에 체계를 부여하는 시간,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했던 시간, 실수에도 너그러워지는 시간, 견문을 넓힌다는 말의 뜻을 새삼 느끼는 시간, '리더'라는 말의 의미를 가장 많이 고민한 시간.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7개월은 제게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정명희 | 녹색연합

아산 프론티어 네트워크 N_SQUARE

N_SQUARE는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수료생 동문들의 자발적 비영리 분야 네트워크입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통해 배출된 비영리 분야의 활동가들이 스스로 네트워킹 자리를 만들어 사회적 임팩트를 만들어내기 위해 수료 이후에도 꾸준히 교류하고 있습니다.

N_SQUARE는 아카데미 수료 이후 이들이 지속적으로 교육과 자기 계발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15년에는 NPO 현장 활동가들의 분투기를 담은 도서, <힘들지만 행복한 일이야>를 발간했으며, 비영리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지식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N_TALK', 비영리 현안을 토론하고 고민하는 콘퍼런스인 'N_FORUM' 등이 매년 개최됩니다. 2017년 '변화의 시대, 사라지는 경계 - 비영리는?'이라는 주제로 열린 N_FORUM에는 500여 명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



Interview



김용한

2017 N_SQUARE 동문회장

N_SQUARE는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수강생 동문들이 직접 만든 조직인 만큼, 활동도 다양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3기 수료생 김용한 동그라미재단 사업실장님과 4기 수료생 박용선 프렌다아시아 사무국장님이 공동으로 동문회장을 맡았는데요. 김용한 회장님을 만나 2017년 동문 활동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N_SQUARE에는 N_TALK, N_FORUM 등의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N_TALK 와 N_FORUM은 대체 무엇이고, 왜 진행하는 것일까요?

N_TALK 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거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작년에는 총 여섯 번을 진행했고, 회당 서른 명 이상의 동문이 참석했죠. 기술적 변화, 사회적 변화 내에서 비영리가 지켜야 할 가치와 또 적응해야 할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어요. N_FORUM은 토크의 확대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영리 종사자이자 N_SQUARE의 일원인 동문들이 포럼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죠. 2017년도에는 '변화의 시대, 사라지는 경계 - 비영리는?'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진행했고, 5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했습니다. 아마 국내 비영리 분야 포럼 중 최대 규모가 아닐까 생각해요.

단순히 친목 도모나 네트워킹 행사를 진행하는 것을 넘어서 끊임없이 자신의 분야를 개척해 나가고자 하는 N_SQUARE 동문들의 모습이 참 멋졌는데요. 이렇게 조직이 자리를 잡기까지 쉽지만은 않았다고 합니다.

2016년까지만 해도 동문회가 있었지만 조직화가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종의 이사회를 구성해 각자 역할과 책임을 지면서 운영을 해보자고 회장단 구성원과 마음을 모았죠. 기수마다 한 명의 대표를 선출해 의견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했어요.

이 과정에서 N_SQUARE의 공식 비전, 미션도 만들어졌습니까.

N_SQUARE가 성장하면 할수록 우리의 방향성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2회에 걸쳐 동문들이 모여 직접 비전미션 워크숍을 진행했고, 결과적으로 '더 좋은 세상을 위해 함께 모여 서로 배우고 성장한다'라는 미션을 만들었습니다. '사회변화를 주도하는 비영리 혁신리더'라는 새로운 비전을 세웠고요. 이런 비전과 미션을 만드는 과정도 아산나눔재단의 적극적 지원이 있기에 가능했어요.

김용한 동문회장님은 1년의 임기를 마치고 다시 N_SQUARE의 구성원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론티어 정신'을 강조하셨습니까.

N_SQUARE 활동은 스스로의 성장을 위해 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해요. 1년 동안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통해 배운 것을 자신의 직장, 그리고 동문회 활동에서 완성해가야 해요. 아산나눔재단이 우리를 믿고 이 일을 자율적으로 맡겨주는 만큼, 동문들도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길 기대합니다.



파트너십 온 Partnership ON



파트너십 온은 청소년을 돕는 비영리기관을 ‘벤처 기부(Venture Philanthropy)’ 방식을 통해 재정적·비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산나눔재단은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을 위해 혁신적 아이디어를 발휘하고자 하는 비영리기관을 ‘혁신리더’로 선정해 다각도로 지원합니다.

전략, 홍보, 세무·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를 투입해 밀착 자문하고 컨설팅 및 교육을 실시하는 ‘비재정적’ 지원과 함께 한 기관당 최대 3년간 연간 2억 원씩 지원하는 ‘재정적’ 지원도 이루어집니다. 2017년 12월에는 동녘지역아동센터, 드림터치포울, 세상을 품은 아이들,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자오나학교, 해솔서관학교, 행복한 청소년 등 7개 혁신리더가 다양한 성과를 거두며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종료했습니다.

파트너십 온 운영 및 지원 현황

지원기관 수

14개 기관



재정 지원 규모

56억 원



비재정 지원 규모(총 840시간)

44개



※ 전문가 및 기관 참여

파트너십 온 1기 혁신리더 주요 성과(2015~2017)

· 기관 평균 수입 증가 추이

2.3억 → 7.2억

▲ 3.1배

· 기관 평균 개인기부자 수 추이

186명 → 627명

▲ 3.4배

· 참여 청소년 수

8,380명

Transparent Management

아산나눔재단은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운영의 책무성과 투명성을 지키며
나눔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투명경영

재정 보고

- 사업비 지출현황
-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 재무상태표
- 운영성과표

아산나눔재단 사람들

- 임원진
- 사무국
- 출연자 및 출연기관

2

사업비 지출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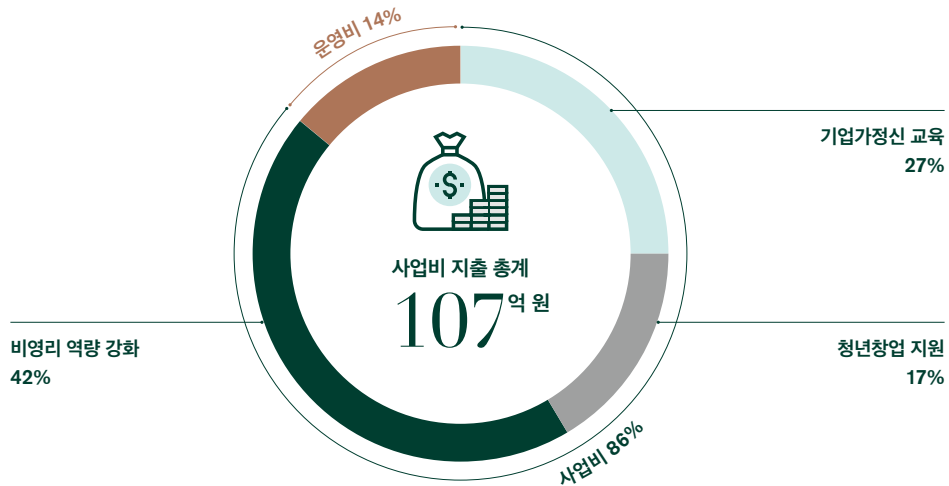
아산나눔재단은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성실공익법인>으로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지출 총계
107억 원



2017년		단위: 원
사업비	9,224,165,645	86%
① 기업가정신 교육	2,945,474,358	27%
② 청년창업 지원	1,795,411,128	17%
③ 비영리 역량 강화	4,483,280,159	42%
운영비	1,446,790,037	14%
합계	10,670,955,682	

※ 해당연도 목적사업을 위한 자산취득액 등이 포함된 금액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아산나눔재단은
외부감사를 통해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보고

우리는 별첨된 재단법인 아산나눔재단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동 재무제표는 2017년 12월 31일과 2016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운영성과표 및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 회계정책에 대한 요약과 그 밖의 설명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경영진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대한민국의 일반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책임은 우리가 수행한 감사를 근거로 해당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가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며 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얻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재무제표의 금액과 공시에 대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절차의 수행을 포함합니다. 절차의 선택은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위험에 대한 평가 등 감사인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인은 이러한 위험을 평가할 때,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및 공정한 표시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고려합니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또한 재무제표의 전반적 표시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출한 회계추정치의 합리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합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감사의견

우리의 의견으로는 재단법인 아산나눔재단의 2017년 12월 31일과 2016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대한민국의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삼일회계법인(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92)

대표이사

김 영 식

2018년 3월 16일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아산나눔재단은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보 공개의 중요성을 인지하며 법과 제도를 준수합니다.

재무상태표		단위: 원	
과목	제7(당)기말	제6(전)기말	
자산			
I. 유동자산	90,433,705,002	127,772,985,559	
(1) 당좌자산	90,433,705,002	127,772,985,559	
II. 비유동자산	533,335,795,880	493,162,412,334	
(1) 투자자산	444,592,465,437	409,196,251,557	
(2) 유형자산	88,677,539,043	83,782,451,277	
(3) 무형자산	65,661,400	83,709,500	
(4) 기타비유동자산	130,000	100,000,000	
자산총계	623,769,500,882	620,935,397,893	
부채			
I. 유동부채	673,386,387	573,121,085	
II. 비유동부채	1,906,107,916	1,866,295,863	
부채총계	2,579,494,303	2,439,416,948	
자본			
I. 출연재산	587,004,639,500	587,004,639,500	
II. 이익잉여금	34,995,840,808	31,491,341,445	
III. 기타포괄손익누계액	(810,473,729)	-	
자본총계	621,190,006,579	618,495,980,945	
부채 및 자본총계	623,769,500,882	620,935,397,893	

운영성과표		단위: 원	
과목	제7(당)기	제6(전)기	
I. 사업수익			
(1) 고유목적사업	125,752,253	207,223,364	
(2) 수익사업	14,431,826,788	12,332,563,390	
1. 이자수익	3,981,927,343	4,272,536,755	
2. 배당금수익	6,035,600,803	7,123,940,149	
3. 임대료수익	3,239,009,290	695,874,160	
4. 관리비수익	1,175,289,352	240,212,326	
II. 사업비용	11,502,039,776	9,845,913,687	
(1) 직접목적사업비	8,632,354,612	8,174,405,963	
(2) 일반관리비	2,869,685,164	1,671,507,724	
III. 사업이익	3,055,539,265	2,693,873,067	
IV. 사업외수익	768,790,262	6,311,943	
V. 사업외비용	24,788,790	201,736	
VI. 법인세등차감전순이익	3,799,540,737	2,699,983,274	
VII. 법인세등	295,041,374	13,985,299	
VIII. 당기순이익	3,504,499,363	2,685,997,975	
IX. 기타포괄손익	(810,473,729)	-	
X. 총포괄손익	2,694,025,634	2,685,997,975	

임원진



이경숙 이사장
아산나눔재단 이사장



권찬 이사
前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부회장



김도현 이사
국민대학교 교수



김상범 이사
SK encar.com 대표



김지훈 이사
스톤브릿지캐피탈 대표이사 / 사장



김진우 이사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안성기 이사
영화배우
신영균예술문화재단 이사장



이석연 이사
법무법인서울 대표변호사
한국세무사회 고문



장석환 이사
아이디어브릿지자산운용
대표이사



정남이 상임이사
아산나눔재단



함재봉 이사
아산정책연구원 원장



오세현 감사
현대중공업 준법경영실장 / 부사장



이상신 감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세무전문대학원 원장

사무국

이사장 Chairperson	이경숙
---------------------------	------------

상임이사 Executive Director	정남이
-----------------------------------	------------

스타트업팀 Startup & Entrepreneurship Team	이혁희 팀장 강혜진 매니저 백하정 매니저 이희상 매니저 최유진 매니저
---	---

글로벌리더팀 Global Leadership & Education Team	박지훈 팀장 김아람 매니저 백민경 매니저 안태호 매니저 천성우 매니저
---	---

파트너십팀 Partnership Team	차선주 팀장 권현우 매니저 전경호 매니저 조상욱 매니저
----------------------------------	---

경영지원팀 Management Support Team	경은정 팀장 김미경 매니저 김민우 매니저 김소진 매니저 이고은 매니저 전송이 매니저 최유나 매니저
---	---

출연자 및 출연 기관

아산나눔재단 탄생에 함께 뜻을 모아주신 출연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개인

정상영	정몽준	정몽근
정몽규	정몽석	정몽운
정몽진	정몽익	정지선

법인

현대중공업 그룹	KCC
현대백화점그룹	현대산업개발
현대중합금속	한국프랜지공업
현대중합상사	

아산나눔재단
연차보고서 2017

The Asan Nanum Foundation
Annual Report 2017

기획 및 편집	아산나눔재단
발행	아산나눔재단
디자인	(주)디자인인트로
발행일	2018. 05
주소	서울시 중구 동호로 208
전화번호	02. 741. 8220
홈페이지	www.asan-nanum.org
이메일	info@asan-nanum.org
블로그	blog.naver.com/asan_nanum
페이스북	facebook.com/TheAsanNanum

